

화제 **의의** **책**

욕망론 허우성 외 지음

'욕망'이란 많은 종교와 철학에서 빈번하게 쓰이면서도 그 개념이 일관성있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욕망론)은 불교철학과 노장철학 기독교철학의 진공자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욕망론을 서술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각 종교별로 욕망이란 말의 새로운 개념정리를 바탕으로 △욕망의 실상들을



종교별로 욕망에 대한 개념 정리

나열하고 △모든 욕망이 생겨나는 근원적인 기원의 파악 △모든 욕망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각 종교철학에서 정의하는 욕망론을 한데 모아 욕망론의 비교연구서로 주목된다. '불교의 욕망론'에서 허우성교수(경희대·철학)는 욕망의 변증법적 운동을 초기불교의 아함경전과 대승불교의 유마경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경서원, 9천원)

출판단신 **부처님... 만화집 보급**

구정가 판매 실시 **책방에서야문, 5월말까지**

책방에서야문에서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지난 20일부터 5월말까지 구정가판매를 실시한다. 구정가판매는 일부 불서에 한정하며 발행 당시의 정가 또는 30~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민족사 불광출판부 우리출판사 여러 관을 정선세계사 등 10여개 출판사가 구정가 판매에 참여한다.

새로운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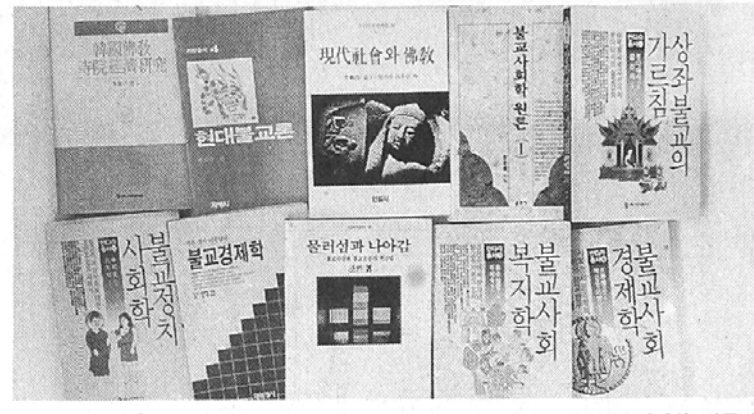
▲**불 백문백답**=부산 금모서원 조실 진제선사의 선문답집. 수선회와 금모선원 정진대중과의 문답을 통해 선사의 깨달음의 안목과 선수행의 올바른 방도 그리고 선사의 출가와 인가과정, 돈오돈수 사상의 진면목을 밝혔다. (파란나라, 3천원)

▲**청소년법회 길잡이**(고우익·현익재 엮음)=청소년법회 현지에 필요한 예불문과 축원문 그리고 불교의 일반상식과 입문교리를 한데 모았다. 특히 각종 기념일 국경일 법회도 볼필 수 있도록 안내했다. (불심총합원, 4천5백원)

▲**현자는 더이상 침묵하지 않는다**(김일하 지음)=구도정진과 창작활동에 전념해온 저자의 첫 장편소설. 세간의 관계를 끊고 은거하던 도인들이 더이상 침묵하지 않고 인

불교와 제과학 접목서적 '관심'

'현대사회와 불교' '불교경제학' 등 10여종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불교와 사회과학의 관계 규명과 불교가 추구하는 정치경제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를 모색하는 책들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80년대 민중불교운동이 확산되면서 이 운동의 경전적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는 책들의 출판이 활발했다. (현대사회와 불교)(이재창 외, 한길사) <현대한국불교론>(지양사) <현대불교론>(석도수 편, 지양사) <불타의 새얼굴>(제럴드 섀터, 한진출판사)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와 불교)는 '불타의 가르침' '불교의 사회경제관' '불교의 사회사상' '불교의 종교의식과 역사의식' 등의 논문을 실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그리고 이 시대에 불교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불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불교와 정치와의 관계를 다룬 책으로는 <불교의 정치철학>(정성석 역, 대원정사) <불교정치사학>(나카무라 하지메, 불교시대사) 등이 있다. (불교의 정치철학)의 저자인 피야세나 닷사나야케는 불교정치 이론의 궁극적 목표는 비이

통일·환경·핵문제 해답 구체적 제시해야

대세위 서구경제학 이론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불교사원경제연구)에서는 불교경제학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소유(少欲)의 소유관념 △사방승가(四方僧伽)의 공유원칙을 통한 경제적인 복지사회의 건설임을 밝혔다. (불교사회학원론)은 불교가 사회적으로 취하는 시각과 인간구제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와는 달리 불교운동의 불교사상적 철학적 기초를 모색하고 있는 책으로 <물려섬과 나아감>(법성, 한길사) <상화 불교의 가르침>(붓다다사, 불교시대사) 등이 관심을 모은다. 한편 불교와 사회과학과의 관계를 다룬 책들은 번역물이 대부분으로 국내불교학의 응용분야에 대한 저술 출판이 더욱 활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특히 환경 교통 통일 핵문제에 대한 불교적 답변을 모색하는 한편 불교사학운동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출판도 요구되고 있다. (정성문 기자)

◇불교와 사회과학 관계 밝힌 책

불교의 정치철학	피야세나 닷사나야케	대원정사
불교정치사학	나카무라 하지메	불교시대사
불교경제학	E. F. 슈마허	대원정사
한국불교사원경제연구	이재창	불교시대사
불교사회학원론	진열	운주사
불교사회복지학	오노 신조	불교시대사
현대사회와 불교	이재창 외	한길사
상화불교의 가르침	붓다다사	불교시대사
물려섬과 나아감	법성	한길사

교사상의 정치·사회윤리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정리하고 있어 이 분야 연구의 좋은 자료 활용되고 있다. (불교경제학)(E.F.슈마허, 대원정사) <한국불교사원경제연구>(이재창, 불교시대사) <불교사회학원론>(진열, 운주사) <불교사회복지학>(오노 신조, 불교시대사)은 불교적 관점의 사회·경제원리와 윤리를 다루고 있다. (불교경제학)에서는 불교의 중도(中道)를 경제원리를 제시, 조화와 합목적성의 추구를

명사추천

불서 100선

지눌스님의 '수심결'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의 <수심결(修心訣)>. 5천여자의 그리 길지 않은 이 책은 내 학문의 방향을 결정지었고 출공 삶의 밝은 등불이 되어오고 있다. 내가 결정적으로 이 저술과 만난 것은 1970년대 초이다. 그때 나의 유학생생활은 아주 힘들 것이었다. 육체적으로 노동을 가까운 일을 해야 했고 학문적으로도 지리가 잡히지 못했다. 나의 관심은 궁극적인 종교개혁에 쏠려 있었고 그래서 신비사상에 심취(?)되어 있었다. 시·공을 초월한 '하나'의 체험, 말이 끊어진 세계, 그리고 밝음과 어둠이 동시인 이른바 신비 파라독스 등을 본령으로 하는 신비사상은 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내가 (수심결)을 다시 읽은 것은 그 무렵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신비사상의 거의 모든 것을 (수심결)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전체 내용이 '하나'의 깊은 체험의 샘에서 흘러나와 체



강 건 기 (전북대 교수·철학과)

깨우침·뒤움의 길 적극 제시 마음 공부 체험 통해 일러줘

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가, 침관이다. 일찍이, 중국이나 일본의 (대장경)속에 소개된 일이나 근래의 명저 <선학의 황금시대(The Golden Age of Zen)>에서 저자인 대만의 석학 오경웅(吳經熊)이 지눌의 이 저술을 통해 깊은 영향을 받았고 그 솔화하고 있음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수심결)이아말로 선학의 강요사이다. 글으로, (수심결)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 "삼계를 윤회하는 중생의 고통은 불난집보다 더한 법이다. 그런 고통을 아껴 잡아 그대로 머물러 받으며 하는가. 윤회를 벗어나려면 부처를 찾는 길밖에 없다. 부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부처는 곧 이 마음이다.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으려 하는가? 이 몸을 떠나 따로 있지 않다." (수심결)은 자기상실의 깊은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자기회복의 원음이다. (정성문 기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에서야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아함법상의 체계성 연구	고익진	동대출판부
2	영원한 자유의 길	성철	장경각
3	마음의 향기	석성우	토방
4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광
5	차크라바르틴	성낙주	살길
6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최순우	학고재
7	지관의 이론과 실천	남와혜사	삼양
8	솔통채원	김대현	유유문화사
9	불교의 체계적 이해	고익진	새터
10	젊은 불자들을 위한 수행론	법륜	중앙불교교육원

구입문의: (02)737-0695

韓國佛教美術大典

우리 민족과 한국미술의 자존심을 이 책으로 살렸다!!

대한민국 제38회 출판문화상에 빛나는 「한국불교미술대전」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및 일본 경도대학 부설 불교미술 연구소에서 우리문화의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7권 구성

- 1. 佛敎彫刻
- 2. 佛敎繪畵
- 3. 佛敎建築
- 4. 佛敎工藝
- 5. 現代佛敎美術
- 6. 世界의 佛敎美術
- 7. 佛敎美術資料集

한국 불교미술 집대성. 팔만대장경 이래 한국불교문화사 최대의 불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 불교미술. 국문판에 이어 일어판, 영문판도 곧 이어 발간. 한국출판사상 보기도문 대기책에 최고급 인쇄.

8절판(26.5×36cm)의 초대형크기
 각권 312~376페이지의 울퉁퉁 인쇄
 본문 180g의 스노우화이티지 사용
 호화양장제본에 날김케이스, 금박 포클로스
 정가 630,000원(전7권)

현대불교 구독자 사은행사로 선착순 100명에 한하여 전권 630,000원을 490,000원에 현금 및 할인 분할해 드립니다. 법보시용으로 최적입니다.

주문처: 현대불교신문사 사업부 TEL: (02)737-0695 FAX: (02)737-0696

공급처: (주)한국색채문화사 TEL: (02) 333-0051 FAX: (02) 338-7781